

<특 집 : 독서진흥 환경개선 및 진흥정책 모색>

영유아의 독서 - 북스타트로 시작을!



■ 전 기 옥 북스타트코리아 기획위원, kojeon@hanmail.net

1. 들어가는 말

21세기를 살면서 독서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첨단 미디어의 발달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지식, 정보의 습득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과 웹 검색 등으로 우리는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수동적인 정보의 습득에 그치지 않고 주체적으로 그 정보를 활용하고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책임기가 필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책임기는 어려서부터 생활화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기가 즐거워야 한다. 즉 상상력과 창조적인 과정으로서의 책임기든 지식과 정보의 습득을 위한 것이든 그 기본적인 밑바닥에는 즐거움이 자라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유아기의 책임기 습관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영유아기에 책임기를 어떻게 시작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진행했는지에 따라 책과 친해질 수도,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책을 읽으면서 좋은 감정과 추억을 갖게 된다면 즐겁게 책과 친하게 지낼 수 있겠지만, 지루하고 재미없는 책임기가 반복되었다면 책을 읽고 싶은 생각은 사라질 것이다. 영아기에 시작하는 북스타트는 책임기가 즐겁고 좋다는 인식을 갖게 해 준다.

2. 북스타트란

북스타트는 '책으로 시작하자!' 는 의미다. 단순히 어려서부터 책읽기를 시작하자는 것이 아니라 삶의 시작을 책과 함께 하면서 책 읽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고, 책을 통해 양육자와의 의사소통으로 사랑과 신뢰를 갖게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북스타트는 생후 6개월~12개월 미만의 아기들에게 그림책과 부모용 안내서, 도서관 이용 안내서, 유아용품 등이 들어 있는 북스타트 가방을 선물한다. 아기에게는 책을, 양육자에게는 육아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는 지역사회문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정기 예방 접종을 받으러 보건소에 오는 아기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시행하기도 하고, 지역의 도서관에서 대상 아기들에게 홍보하여 실시하기도 한다.

또한 북스타트 가방을 선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차후에 부모교육이나 아기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아기와 책을 연결해주고 육아지원을 하기도 한다. 북스타트 대상자는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도서관을 자주 찾게 되고 책읽기 습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2-1. 북스타트의 목적

책읽기의 목적에 대해서 앞서 발제자는 즐거움, 정보와 지식의 획득, 정신의 양식이라고 밝히고 있다. 북스타트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제 일차적인 목적인 즐거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책읽기가 즐겁다는 생각을 어려서부터 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을 만들어주고 양육자가 이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생후 5~6개월 된 아기를 무릎에 앉히고 양육자가 책을 읽어주는 행위는 아기에게 좋다는 느낌을 주게 된다. 장난감처럼 갖고 놀면서 책이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책읽기가 즐겁다는 인식이 싹트게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기들이 책과 친해지게 되고 '책은 내 친구' 가 된다.

두 번째로 북스타트는 아기와 양육자와의 친교를 돕는 소통 수단이다. 영국의 북스타트 운동의 창시자인 웬디 쿨링은 북스타트에 대해서 "북스타트는 아기와 함께 책을 읽는(read) 운동이 아닙니다. 함께 하는(share) 운동입니다."(사토 이즈미, 일본 북스타트 지원센터 이사, '아기와 함께 하는 행복한 시간, 북스타트' 2003, 9)라고 했다. 돌도 지나지 않은 아기가 어떻게 책을 읽을 수 있겠는가? 양육자와 책을 함께 하는 동안에 둘 만의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둘 사이에 사

량과 신뢰가 싹트게 되는 것이다.

세 번째로 북스타트는 사회적 육아지원운동이다. 아기 양육에 대해 사회도 함께 책임을 나눠지고 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 아기들의 정기 예방 접종 시기에 보건소나 도서관에서 그림책이 들어 있는 북스타트 가방을 선물하면서 육아 상담도 함께 한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부모교육을 통해서 육아에 대한 상식이 부족한 부모들은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되고 보다 효과적인 아기 양육법을 알게 된다. 아기들이 사랑과 신뢰를 받으면서 바르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북스타트가 만들어 나가고 사회는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2-2. 북스타트의 시기 - 왜 영아기인가?

무슨 일이든 시작은 아주 중요하다. 시작할 때의 느낌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북스타트는 돌 전의 아기들을 대상으로 한다. 막 장난감을 손에 쥐고 놀 무렵인 생후 5~6개월은 아기들이 앉을 수 있는 시기다. 이 때 책을 장난감처럼 갖고 놀게 해주고, 기분이 좋을 때 함께 책을 보면서 책에 대한 첫 느낌을 좋게 해준다

2-3. 북스타트의 효과

북스타트를 시행하는 주체를 둘로 분류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도서관과 같은 하드웨어고 다른 하나는 북스타트를 시행하는 자원봉사자와 북스타트를 지원하는 후원자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관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가져올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펼치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게 된다.

보건소에서 북스타트를 시행하는 경우, 주민들의 의료복지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게 된다. 북스타트 시행 결과 보건소 이용이 증대되고(이화경, 중량구 보건소장, '책읽는 사회 만들기국민운동과 함께 하는 북스타트 운동 협력 사업평가', 2004. 4)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계기가 된다.

도서관의 경우는 북스타트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은 내 친구'의 과정이자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북스타트 시행을 계기로 도서관 내에 영유아실을 마련하게 되고(예, 중

량구 도서관) 도서관 이용 계층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고 유치원, 학교와의 연계도 활발해진다.

한편 자원봉사자들은 북스타트 대상자들에게 육아체험과 구연동화 등을 들려주는 기회를 갖게 되고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북스타트의 효과는 북스타트 대상자들의 반응이다. 아기와 양육자와의 사이에 생겨나는 사랑과 신뢰는 가장 중요한 북스타트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북스타트 대상자들을 교육할 때에 나타나는 것으로 참가하는 아기들과 양육자 사이에 이미 믿음이 형성되어 있기에 교육 시간이 별 문제없이 평화롭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더불어 북스타트는 우리나라 영유아 도서 개발의 계기가 되기도 했는데, 영유아 도서 개발을 위한 세미나가 2005년 2월에 열렸다. 또한 전국의 작은 도서관이 활성화되는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다.

2-4. 북스타트의 현황

1992년 영국에서 시작된 북스타트는 매년 65만 명의 신생아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으며, 2000년에 북스타트를 시작한 일본에서는 630여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다. 미국, 태국, 호주, 뉴질랜드, 칠레, 캐나다 등에서도 북스타트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2003년 4월, 서울 중랑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국의 북스타트는 2006년 현재 19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특히 진해 기적의 도서관과 제천 기적의 도서관, 울산 북구 기적의 도서관과 인천 연수구에서는 정기적으로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북스타트 대상자들이 꾸준히 도서관을 찾게 하고 서로의 모임을 통해 육아 상담 기회도 마련하는 등 북스타트의 효과를 배가하고 있다.

또한 목포 보건소에서는 도서관과 연계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꾸준히 예산을 마련하고 북스타트를 확산시키고 있다.

구 분	지방자치단체명	시행 단체
2004년 8월	서울 중랑구	중랑구 보건소
9월	인천 연수구	연수구 보건소
9월	서울 중구	중구 보건소
10월	전남 순천시	순천시 평생학습관
2005년 1월	울산 남구	울산 남부 도서관
3월	전남 광주시	광주 일곡 도서관
4월	전남 여수시	여수 현암 시립도서관
4월	전남 목포시	목포시 보건소
4월	경남 밀양시	밀양시 하남 도서관
5월	서울 서초구	서초구 보건소
5월	경남 진해시	진해 기적의 도서관
5월	충북 제천시	제천 기적의 도서관
7월	울산 북구	울산 북구 도서관
7월	울산 동구	울산 동부 도서관
10월	부산 수영구	수영구 도서관
2006년 1월	울산 울주군	울주 도서관
2월	울산 중구	울산 중부 도서관
3월	경남 창원시	대산마을 도서관
5월	강원도 속초시	속초시 평생교육정보관
예정 7월	경기도 구리시	인창 도서관
7월	인천 부평구	부평 북스타트 추진위원회
7월	서울 마포구	마포구청
7월	경기도 이천시	이천시립도서관
7월	전남 장성군	장성군보건의료원
7월	경남 마산시	마산 합포 시립도서관

〈표 1〉 북스타트 시행 지역과 예정 지역(2006년 7월 기준)

2-5. 북스타트의 과제

북스타트가 현재 우리나라 19곳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초기의 붐과 열의와는 달리 행정적인 한계로 인해 적극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로 시행되다 보니 선거법과 관련해서 문제가 야기되어 홍보는 물론 처음의 취지와는 달리 대여 형식을 띠고 이루어지는 곳도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일이다.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적극 검토해서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경우라면 행정적으로 문제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출생하는 신생아 모두가 북스타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지원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에 사회복지실현의 하나로 보건복지부에서 신생아 정기 검진 제도를 시행하기를 제안한다. 예방 접종 외에는 보건소에 갈 이유가 없는 우리 현실에서 보건소의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은 더욱 더 요구된다. 특히 영아기에 병원 예방 접종을 선호하는 부모들의 인식을 바꿀 필요도 있다. 북스타트를 계기로 보건소의 역할이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더 많은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해 '공공도서관 건립의 중장기 계획' 수립을 문화관광부에 제안한다. 북스타트는 어린이 도서관 건립의 불을 가져오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어린이 도서관 건립이 한창이다. 동네마다 작은 도서관 하나씩은 있도록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3. 나가는 말

북스타트는 영아기 책읽기를 위한 프로그램일 뿐만 아니라 책읽기 문화를 형성해나가는 시작이다. 아기들에게 책 읽는 기쁨을 선사하고 양육자와의 교감을 통해서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지역사회 문화운동이다. 아기와 양육자 사이에 싹튼 사랑과 신뢰 관계는 더 나아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해 준다.

북스타트에 참여한 아기들이 책을 좋아하게 되고 언어와 수리 능력에서 뛰어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다. 이들에게 바람직한 독서문화와 환경을 가꾸어 주는 것은 사회의 몫이다. 북스타트를 통해서 책읽기의 진정한 기쁨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고, 새로 태어나는 아기들과 이 기쁨을 함께 나누는 북스타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